

인 사 말 씀

안녕하십니까?

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입니다.

오늘 미야타 요시미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바쁜 중에서도 학술토론회를 위해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

귀 회와 당회는 1991년부터 우호친선관계를 위해서 교류가 시작되어 왔습니다. 더구나 2005년부터 9차례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세정 전반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해 왔으며 한층 더 성숙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.

이 학술토론회는 매번 중요한 테마를 정하여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를 비교하고 부제 공통으로 종교법인의 과세실태와 한국의 조세교육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.

양회는 국가적으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어 이 학술토론회가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.

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미야타 요시미 회장 및 임원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

2014. 11. 20

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
최 상 곤

인 사 말 씀

안녕하십니까? (こんにちは)
긴끼세리사회 미야다 요시미 회장입니다.

우선 10월2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설립 50주년 기념식전 및 기념축하연에 최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과 이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

귀 회와 당회는 1991년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하였고, 그 후 2005년부터 실질적인 교류를 깊게 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학술토론회 개최기념 10주년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

학술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긴끼세리사회의 내외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

이번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그리고 종교법인의 과세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며, 양국의 제도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

그 위에 일본에서는 올해 세리사법 개정 시 조세교육이 세리사회 회칙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만, 귀 국에서의 조세교육 상황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.

오늘 이 학술토론회가 양 회를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보다 더 깊게 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.

마지막으로 귀 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융성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으로 대합니다.

감사합니다.(感謝いたします.)

2014년 11월 20일

긴끼세리사회
회장 미야다 요시미